

사설

문화의 보고 디지털 대장경

은 국민의 성원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추진돼온 고려대장경 디지털화 사업이 마침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목판 인경본 12장, 유니 코드 전환용 3장, 총 15장의 CD-Rom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 다. '도(道)가 한 뼘 자라면 마(魔)가 한 장 자란다'고 한다. 이 일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소장 종림스님을 비롯한 고려대장경연구소 석구들의 굳센 원력에 깊이 고개를 숙인다.

어떤 스님의 말씀대로 종림스님은 전생에서 대장경 판각 작업을 했는지 모른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국난을 이겨내고자 했던 고려인들의 합일된 염원이 고려대장경을 이뤄냈듯이, 고려대장경 디지털화 사업은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 진행되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21세기 디지털 팔만대장경을 만들자' 캠페인을 떠올리게 된다. 어린애의 코를 후원공에서 해의 교포들의 성금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서 성원이 쇄도하지 않았던가!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고려대장경이 한국인의 문화적 자긍심을 지켜주는 정신적 보루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려대장경 디지털화 사업은 비단 불교계만의 불사(佛事)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사업임을 드러냈다. 이번엔 출간되는 고려대장경 CD-Rom에는 이렇게, 불교도의 원력뿐만 아니라 남북 한민족의 문화적 염원이 알알이 새겨져 있는 것이다.

고려대장경 CD-Rom 발간을 통해 고려대장경 원형을 디지털 상태로 보존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려대장경 CD-Rom 사업을 그동안 성원해 준 온 국민의 바람을 볼 때 앞으로 남아있는 불사가 산적해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인 보완점으로, 한글 대장경과의 연계 작업, 일본의 대장경수대장경과의 대교 작업, 한글 표정 작업을 들 수 있겠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측은 '통합대장경'의 가치 아래 기존의 팔만대장경, 산스크리트어 불경, 티베트 대장경을 연계하면서 이 모든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하니, 그 성공적 전도(前途)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시 한번 고려대장경 CD-Rom 발간을 축하하며, 온 국민의 관심을 끌고 애정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불교여성개발원 향후 과제

불교여성개발원이 27일 마침내 그 힘찬 출발을 선언했다. 그리고 불교여성학 연구, 여성불자 교육, 가정 바로세우기 등의 사업계획도 제시했다. 양성평등의 사회를 이룩하며, 자연과 더불어 상생하는 세계를 구현한다는 불교여성개발원의 목적에 동의할 것이다. 담당하면서도 결혼한 여성불자 지도자를 양성하겠다는 말에서는 불교의 희망을 보는 듯하다.

여성불자들은 그동안 한국불교를 떠받치는 버팀목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한국불교신도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불적인 토대를 맡아 오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치마불교'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으며 불어려왔던 것도 사실이다. 불교여성개발원이 창립취지문에서 지적했듯, 가장 중요한 사회구조 속에 안주해왔던 결과다.

우리 불교사에 큰 사건으로 기록될 불교여성개발원의 창립에 즈음해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함으로써 축하를 대신한다.

우선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교계 내의 여러 단체가 있지만, 재정자립도는 극히 낮다. 행사를 한번 치르기 위

해서는 중단 등에 후원을 요청해야 하고, 임원진이나 몇몇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수 천명의 회원이 있다는 단체도 그러했다. 조계종 포교원의 지원이 있지만, 회원들의 회비 납부가 가장 이상적이다. 새로 출발하는 불교여성개발원은 재정면에 있어서도 교계의 모범을 창출하는 단체가 되길 바란다.

기존의 단체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될 과제라 삼아야 한다. 때론 경쟁하면서, 때론 서로의 모자란 점을 매워주면서 불교여성운동의 지평을 넓히고, 나아가서는 한국불교 발전에 큰 보탬을 주는 불교운동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또한 남성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불교여성개발원이 되길 바란다. 남녀는 함께 수행하고, 부처를 이루어가야 할 도반이다. 여성운동 일부에서 한 때 남성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삼아 오려려 운동의 퇴보를 가져왔던 전철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전근대적이고 의타적인 일부 여성불자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교육에 힘써 수행하는 불자, 불교발전에 일조하는 여성불자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길 바란다.

“불사 관리위 설치 하자”

무분별한 개발 따른 수행환경 훼손 방지

9개 불교단체 토론회

“신축 예정인 조계종 총무원 청사를 친환경적으로 건축하고 ‘사찰환경 의제 21’을 제정하는 등 불교계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의식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조계사 회의실에서 지리산법지화회를 위한 범불교연대 불교환경교육원 등 9개 불교단체가 공동주최한 ‘사찰의 환경 문제를 생각한다’ 주제의 불교 시민단체 연석토론회에서는 사찰환경의 내부적 훼손과 그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가 쏟아졌고, 한국불교의 환경보호를 위한 역할도 모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수도암 주지 범응스님은 “사찰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확장공사와 잘못된 원형복원으로 전통사찰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면서 “전통성이 부재한 마구잡이 불사를 방지하기 위한 종단신하의

불사관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범응스님은 “신축 예정인 총무원 청사를 친환경적으로 건축하고 사찰을 중심으로 한 백두대간 환경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불교환경운동의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찰불사의 환경개념 도입, 교구본사급 사찰의 환경관련 소임자의 배정, 관람료사찰의 전면적인 환경 정비, 전국 사찰의 환경지도 제작 및 환경분쟁백서 발간 등을 제안했다.

이어 이병인 밀양산내대교수는 “사찰환경 훼손에 대한 불교 내부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불교 환경운리의 정립 및 생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사찰환경의 보전과 관리방안으로 △산주(山主)정신 및 전통적 수행방식의 회복 △사찰환경위원회의 내실화 △사찰환경기부금회 설립 △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 △유관기관·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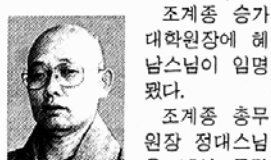


23일 열린 사찰환경관련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교계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의식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와의 협력·유대 강화 및 전문가 양성 △페사지·유적지 등 문화재 현황 및 지표조사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지리산산리기법불교연대 집행위원장 현응스님은 “불사시의 관리·감독 제도의 도입이 내부적인 자체 정화의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말하고, “전반적인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출·재가 대상의 환

승가대학원장 해남스님



조계종 승가대학원장에 해남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7일 종림승가대학원장에 해남스님(중앙승가대 불전국역연구부장)을 임명하고, 12월 8일 은해사에서 열리는 추대식에서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신임 승가대학원장 해남스님은 “승가대학원은 강사님들을 배출하는 곳인 만큼 강의보다는 논과 토론 등을 통한 연구중점을 조성하겠다”며 “가을학기 제를 불학기제로 바꾸고, 문화개방하여 다양한 특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스님은 63년 청년 관용사에서 출가, 67년 부산 대각사에서 율하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70년 고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77년 대흥사 전강, 91년 해인사 강주, 92년 동국대 강사, 93년 법사사 강원 강주를 역임했다. 현재 중앙승가대 불전국역연구원 원장으로 재직중이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사태 관련자 징계 낮춰

현호스님 등 3명 제적에서 공권징지 10년

조계종 특별심사위원회(위원장 원서 호계위원장)는 22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6차 심사회를 열고 현호, 범일, 선광 스님 등 3명의 징계를 공권징지 10년으로 경감한다고 결정했다.

현호스님 등 3명의 스님은 98.99년 조계종사태로 제적의 징계를 받았으며, 지난 10월 제정된 해종행위특별법에 따른 징계 자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징계의 재심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별심사위원회

는 멸빈자에 대한 재심은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우, 성문, 현근, 원학, 현소 스님에 대한 심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회의에 앞서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 바란다”며 징계의 경감을 요청했다. 또 “종헌 개정안은 내달 5일 열리는 중앙총회에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사고사찰 접수는 불법(?)

수원지검 “용화사 가택침입죄” 조사 조계종 “종교단체 인사권침해” 반발

종법에 따른 사고사찰 인수 인계에 대해 검찰이 불법가택침입 등의 형법 적용을 주장하고 나서 조계종총무원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은 지난 해 4월 당시 용화사 주지 상덕스님이 안양 용화사 토지와 건물 전체를 불법매각하자 멸빈의 징계를 내리고, 배임 및 사기혐의로 상덕스님을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이 사건으로 상덕스님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총무원은 이어 지난 해 10월 용화사 주지 덕문스님을 발령하고 검수인계(인수물품 등의 확인 절차)를 마쳤다.

그러자 전 주지 상덕스님이 덕문스님을 불법가택침입 및 공금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안양경찰서는 무혐의 의견을 붙여 검찰에 이송했으나, 수원지검 박모 검사가 덕문스님을 소환해 조사하고, 검수인계를 지휘했던 호법경찰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계종은 이에 대해 총무원장 정대스님 명의로 16일 검

찰총장과 수원지검장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내 “우리 종단의 고유한 운영과 체계를 무시하고 납득되지 않는 사회법적용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조계종은 서한에서 “검수인계는 종단의 사찰주지에 대한 인사권을 실현시키는 방안으로 총무원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검수인계를 불법으로 보는 것은 종교단체의 인사자유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국가사정기관이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적인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박모검사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검사의 의견은 언론에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조계종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이 이 사건에 대해 총무원장 명의로 강력히 항의한 것은 이후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사찰에 대한 검수인계가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성운 기자

“달라이라마 폄하 발언 중대사에 주의 환기”

이정빈 외교통상 장관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새천년을 맞는 한미관계를 주제로 강연 후 ‘달라이라마 폄하 발언’을 한 우다웨이 주한 중국대사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주한외교사절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외교관례상 적절치 않지만 우대사의 발언은 서울에 와있는 외교사절이 소속국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입장을 밝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해 우리장부가 적절히 환기시켰다”면서 “정부는 달라이라마 비자발급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하느냐의 문제를 한·중간 외교마찰을 최소화하는 시점으로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조계종 5일 임시총회

예산안 분담금 등 다뤄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지하)는 내달 5일 149회 중앙총회를 5일 동안의 회기로 연다. 이번 총회에서는 불기 2545(2001)년도 중앙총무기관 예산안, 종헌과 분담금법 등 각종 종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총회 재정분과위원(위원장 자승)은 22, 23일 총무원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재정분과위는 내달 4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부처님과 화상채팅

한국불교태고종 제19대 총무원장 송종연 스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 전국종무원장협의회
- 종단시 발간 준비모임
- 전국교임협의회
- 백진걸사
- 한국불교 청년회
- 종무원 임직원
- 한국불교태고종 태고회
- 전국 비구니회
- 보현도량
- 전국신도회
- 태고부인회
- 성주암 신도회